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4-5 year olds's Creative Thinking and Mothers' Supportive Child-Rearing Behaviors

김수연*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Kim, Suyeon

Dept. of Preschool Education, Mok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4-5 year older's creative thinking and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s creative thinking and their mother's supportive child-rearing behavior. The subjects were 125 pairs of 4-5 year olders and their moth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Multidimensional Stimulus Fluency Measure(Van Hook & Tegano, 2002) was revised and used to measure children's creative thinking. For determining mother's supportive child-rearing behavior, the Child Rearing Behavior Observation Scale (Renshaw & Gardner, 1990) was revised and us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and between the 4 year-olders and 5 year-olders in the "child's creative thinking". Second, when mothers properly keep encouraging children's creative behavi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task, it can significantly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reative thinking.

Key Words : creative thinking, supportive child-rearing behavior, 4-5 year olders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시되는 인재의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과학적 사고가 현 시대에 필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변화주도형의 리더쉽과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육계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현행 6차 유아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1998), 영재교육법 시행령과 시행세칙(교육인적 자원부, 2002)이 마련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

째, 국가적 수준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키워내야만 세계 각국의 기술보호주의와 특허 및 저작권 경쟁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 수준에서 창의성은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특성이며, 창의적 활동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다(Csikszentmihalyi, 1999; Lubart, 1994). 따라서, 창의성은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개인이 습득해야 할 능력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창의성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Guilford(1950)가 약 50년 전 미국 심리학회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대체로 창의성은 창의적 인간, 창의적 과정, 창의적 산물, 그리고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통하여 정의되어 왔다(Tardif & Sternberg, 1988). 그러나 창의성이란 개념 자체가 워낙 광

* Corresponding author: Suyeon Kim
Tel: 042) 867-7201
E-mail: comkids@lycos.co.kr

범위하고 복잡하며 다면적인 성격을 띤 개념이고 단지 가설적 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직 합의된 하나의 정의가 없으며, 연구자들의 이론적 틀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Urban, 1996).

창의성이란,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과 사고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아이디어나 형태, 관계 양식 및 해결방법을 산출해내는 능력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개인의 사고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Sternberg & Lubart, 1996), 여기서 새로운 산물이라는 것은 독창적이고 예측되지 않은 물리적 산물이나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고, 적절한 산물이란 유용하거나 과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다른 것보다 현저히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한다(Cropley, 1999; Lubart, 1994).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의 창의성 이론들을 통합하여 창의성이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복합적 요인들이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 수렴되어야 함을 가정하는 합류적 접근(confluence approach) 및 체계이론이 창의성 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Lubart & Sternberg, 1996). 이에 따라 연구자들도 창의성을 인지나 성격 특성 등 단일한 차원으로 설명하는 관점에서 점차 다원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으로 이해하는 합류적 관점으로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합류적 관점에서는 창의성을 지능, 지식, 사고유형, 성격, 동기, 환경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환경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과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가 창의적 산출물을 수용하고 인식하는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Alexander, Parsons, & Nash, 1996). 합류적 접근을 주장하는 Sternberg와 Lubart(1996)는 창의성이 새롭고 적절한 작업을 산출하는 능력이며,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인지, 성격-동기, 환경 등 복잡한 요소의 합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창의성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 요소들이 창의성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9; Urban, 1996).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으로 가정, 교육기관, 직장,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개인의 창의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Gardner, 1993). 가정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차적 환경으로서,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도 가정환경의 역할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Feldman, 1999). Csikszentmihalyi(1999)는 가정의 양육환경은 창의성을 촉진시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는 유아가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게 하고 유아에게 지적, 문화적 자극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Csikszentmihalyi(1988)는 창의적 성취를 이룬 인물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고적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발달사를 추적하여 창의성에 관련된 요인을 연구한 결과, 창의적 성취에 개인적 특성과 부모 및 가족과 관련된 환경특성이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Kerr와 Chopp(1999)도 어린 시기에 창의성이 뛰어났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가족 환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Tardif & Sternberg, 1988)도 창의적 성취를 위해서 개인의 인지나 성격특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자율성을 장려하는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환경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이 물리적 요인보다 개인의 창의성과 더 관련이 있으며(강상철, 1969), 부모에 의해 조성되는 가정환경의 심리적 특성은 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Amabile, 1996; Isenberg & Jalongo, 1997)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물리적 환경, 부모 또는 유아의 성별, 부모의 연령 등 가정의 물리적·인구학적 특성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반면에, 가정의 심리적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순복, 2005; Hellen, 1999)에 그치고 있다.

한편, 연구자들(Amabile, 1996; Gardner, 1993; Tegano, Moran, & Sawyers, 1991; Torrance, 1976)은 유아기가 창의성 및 상상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Dacey(1989)는 창의성은 전생애를 통하여 발달하는데, 특히 0-5세는 1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으며, Piaget는 표상적 지능이 나타나는 전조작기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유아기에는 창의성과 관련하여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내적인 동기가 크며 호기심을 많이 보이는 등의 성격특성을 발달시킨다고 한다(Tegano, Moran, & Sawyers, 1991).

또한 Torrance(1976)는 0-2세 경에는 상상력이 발달되지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2-4세 사이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는 자율성을 발달시키게 되며, 직접적인 경험과 상상놀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보다 많이 표현하게 되고 호기심을 발달시키게 되어 유아의 창의적인 상상력은 4세부터 4세반 사이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5세 이후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초등학교 시기인 6-12세 사이에 아동의 창의적 상상력은 보다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놀이에서조차 현실적인 세부 사항들을 재산출하려고 하는데, 1, 2학년의 대부

분의 아동들은 환상을 거부함으로써 점차 상상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은 9세경이 되면 관습이나 또래로부터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아동이 독창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시기가 된다고 한다(Runco, 1999). Torrance(1962)는 유아기가 환경이 학업에 대한 압력이 없고 부모와의 접촉 시간이 길며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에 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Torrance, 1976, 재인용).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종안, 1998; 하주현, 1999; Kershner, & Ledger, 1985)을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주된 연구대상은 대부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나 성인들이었다. 반면, 유아들은 창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창의성 연구에서 배제되어왔다.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유아에게는 성인의 기준으로 창의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이경화, 2006; 이영, 김수연, 신혜원, 2002; 최인수, 2000). 유아의 경우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재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아가 창조하는 많은 창의적 산물은 유아 개인에게는 새롭고 유용하지만 성인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출물이 창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온기, 2000).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측정 및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 학령기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근래에 이르러 유아 교육에서 창의적 표현이나 창의적 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예; 이연승, 임애경, 2001),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발달적 연구(이경화, 2006; 전경원, 2000) 및 실제적으로 유아의 창의적 특성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김수영, 김경미, 2006; 김온기, 2000)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에 관련된 양육환경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유아기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태도, 양육행동은 유아의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Torrance(1976)는 지능과 마찬가지로 창의성도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는데, 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의 태도, 가치관 및 양육방식이 유아의 창의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Garren, 1997; Huntsinger, Kreig, & Kim, 2001; Kemple & Nissenberg, 2000)에서도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유아기

교육에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가정에서의 양육행동을 탐색해 왔다.

창의적인 인물의 가족 내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창의적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동기를 장려하며, 부모 자신이 어떤 과제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역할 모델로서 작용한다고 한다(Amabile, 1996; Csikszentmihalyi, 1996; Feldman, 1999; Kemple & Nissenberg, 2000; Snowden, 1994). Miller(1996)는 유아기에는 만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므로, 부모는 자유놀이를 통해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교구를 제공하고, 유아의 속도에 따라 유아가 경험할 시간을 계획하며, 유아가 흥미와 아이디어를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아동의 발견에 대한 흥미를 공유함으로써 자녀가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Schaefer와 Edgerton(1985)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정도(正道)는 없다고 하였으며, Kerr와 Chopp(1999)도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을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화된 부모 양육 실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특별한 양육방식이 어떤 아동에게는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아동에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미치거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첫째, 각기 다른 연령의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둘째, 다양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각 연구들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 다른 영향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aefer와 Edgerton(1985)은 부모가 계속적으로 유아에게 나타나는 창의성을 지지하고 아이디어의 끝없는 나열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Feldman, 1999; Snowden, 1994)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언급되는 양육방식인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인 격려, 자율성 허용, 낮은 통제와 지시, 적절한 지도 및 상호작용 등이 자녀의 창의성 발달과도 관련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는 자녀의 경험을 조직하는 핵심적 협력자로서 자녀의 창의적인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 행동특성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실제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창의적인 자녀의 부모는 아동

의 요구에 관심을 보이고 수용적이며 창의적 표현에 대한 동기를 장려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결정과 호기심, 탐색, 독립성을 장려하며, 자녀의 학습양식을 잘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과 중재 기술을 사용하는 등의 양육행동을 보인다. 반면에 창의성이 낮은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항상 지도와 통제를 가하며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자녀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육특성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통해 유아기의 창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유아의 창의적 사고란 유아의 놀이나 일상적인 활동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사고능력과 지식을 의미하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아의 창의적 사고능력이 유아-어머니간의 창의적 문제해결 상호작용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내는 양육행동의 질적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을 유아-어머니 간의 창의적 문제해결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자율성 존중, 적절한 지도, 정서적 지지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유아기의 창의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놀이상황을 관찰하여 유아-어머니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특성을 조사하여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과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성 발달과 관련된 가정의 양육 맥락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는 어떠한가?

- 1)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유아의 창의적 사고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유아의 창의적 사고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19개 유치원과 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와 어머니 125쌍이었다.

본 연구 대상 유아는 남아가 42.4%, 여아가 57.6%이었고, 4세가 41.6%이고 5세가 58.4%이며, 첫째(63.2%)와 둘째(33.6%)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89.6%)와 아버지(77.6%) 대부분이 30대였고, 어머니(56.8%)와 아버지(55.2%) 모두 대졸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는 대부분 가정주부(55.8%)였으며,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종사자 및 기술직(29.6%)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무종사자 및 기술직(56.0%)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평균월수입은 317.2만원이었다.

2. 측정 도구

1) 유아의 창의적 사고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Van Hook와 Tegano(2002)의 다차원적 자극 유창성 검사(Multidimensional Stimulus Fluency Measure: MSFM)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세 개 하위검사별로 세 문항씩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검사는 “예를 들기”이며, “동근 것/빨간 것/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유아가 다양한 사물을 예로 드는 것이다. 두 번째 하위 검사는 “패턴”이며, “[정육면체/사각뿔/원기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생긴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3가지 질문에 유아가 각기 가능한 해석을 하여 비슷한 모양의 사물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세 번째 하위검사는 “용도”이며, “상자/종이/손가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라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유아가 사물에 대한 용도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검사자가 전사한다. 본 도구는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편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지필식 검사보다 유아

의 언어적 반응을 유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각 문항에 대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3가지 측면에서 유아의 반응을 빈도로 점수화하였다. 유창성은 주어진 특정 자극에 대해 유아가 보이는 반응의 총수이며, 융통성은 주어진 특정 자극에 대해 유아가 반응하는 범주의 총수이고, 독창성은 주어진 특정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응의 총수를 의미한다. 독창성의 기준은 Van Hook와 Tegano(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각 문항별 반응에 대한 빈도를 구하고 전체 반응자의 5%이하가 반응한 것을 독특한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유창성과 융통성, 독창성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각각 0점부터 유아의 반응수에 따라 달라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창의적 사고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명의 검사 결과에 대해 적률상관계수로 측정된 2인 체점자간의 일치도는 창의적 사고 총점에 대해 $r=.98(p<.01)$ 이고, 각 하위영역별로 유창성은 1.00, 융통성은 .99, 독창성은 .95였다. 체점자 내 일치도는 전체에 대해 .95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유창성은 1.00, 융통성은 .97, 독창성은 .98이었다.

2)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가정에서 유아-어머니 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의 수행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선행연구(Renshaw & Gardner, 1990)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관찰척도로 분석하였다.

① 어머니-유아 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

어머니-유아 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McGillicuddy-De Lisi, 1985; Renshaw & Gardner, 1990; Torrance, 198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세 가지 과제를 구성하였다.

어머니-유아 간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이야기” 과제로서, 신문지/빈 강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상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카드 분류하기” 과제로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려진 15장의 카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형 맞추기”로, 제시된 그림이나 유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색이 칠해진 네 가지 도형 조각(원,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으로 두 가지 모양(비행기/자유 과제)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선정한 근거는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행연구(Amabile, 1996; Feldman, 1999; Shaefer & Edgerton, 1985; Snowden, 1994)에서 창의성이 높은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지적된 자녀에 대한 격려와 정서적 지지와 온정 표현, 자율성 허용과 존중, 자녀의 학습 양식에 따른 적절한 지도 등의 반응을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과제 제시 방법은 연구자가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와 어머니가 주로 놀이하는 장소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유아-어머니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20분이며,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관찰을 위하여 어머니가 유아에게 과제를 지도할 때 나타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②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관찰 척도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Renshaw & Gardner, 1990)의 유아-어머니 간 상호작용 관찰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18항목의 관찰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관찰 척도는 정서적 지지 6항목, 자율성 존중 6항목, 적절한 지도 6항목 등 총 18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긍정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며 격려와 관심, 온정을 보이는 것이다. 자율성 존중은 어머니가 유아의 수행에 끼어들거나 방해하면서 어머니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수행이나 동기,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적절한 지도는 과제 수행이 성공하도록 어머니의 주장과 생각을 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유아의 수준에 적절한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본 척도는 관찰자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으로 관찰 평정하여 이를 각 하위범주별로 합산한다. 각 하위범주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척도 전체에 대해서는 18점에서 90점이다. 각 범주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해당되는 지지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관찰에 대해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한 2인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전체 18항목에 대해 $r=.93$ 이었으며, 하위범주별로 정서적 지지 .91, 자율성 존중 .88이었고, 적절한 지도 .90이었다. 관찰자내 신뢰도는 관찰 항목 전체에 대해 .91이었고, 하위요인별로 .91, .90, .92이었다.

3. 연구 절차

예비조사는 4-5세 유아-어머니 10쌍과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용 창의적 사고 검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어머니-유아 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 및 지지적 양육행동 관찰척도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어머니 10명의 지지적 양육행동 녹화 자료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한 후,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와 어머니 15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 보조자 2인이 유아교육기관의 조용한 방에서 각 유아별로 자유놀이시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관찰을 위하여 연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의 실시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어머니-유아 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 수행을 보면서 훈련된 2인의 관찰자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대해 관찰 평정하였다. 수집된 어머니-유아 150쌍의 자료 중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층이 아니거나 어머니-유아간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는 어머니-유아 125쌍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각 측정 변인들에 대해 기술적 통계치를 구하였다.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 검사로 측정된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주어진 특정 자극에 대해 유아가 보이는 반응의 총수인 유창성은 문항별로 평균 7.9점($SD=4.2$)이었다. 주어진 특정 자극에 대하여 유아가 반응하는 범주의 총수인 융통성은 문항별로 평균 5.8점($SD=2.8$)이었다. 주어진 특정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응의 총수인 독창성은 문항별 평균 3.5점($SD=2.6$)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창의적 사고 총점은 문항별 평균이 17.1점($SD=9.0$)이었다. 창의적 사고 검사 전체의 총점은 평균이 153.6점이었고, 점수 범위는 40-444점이었으며, 창의적 사고의 점수에서 유아에 따른 개인차가 큰 편($SD=80.8$)이었다.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창의적 사고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창의적 사고 검사의 총점과 하위요인별 평균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여아는 남아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창의적 사고 총점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일원변량분석 결과에서 유아의 창의적 사고 총점과 하위요인

<표 1>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평균과 표준편차

(N=125)

창의적 사고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M(SD)	문항별 M(SD)
유창성	0~	12~190	71.10(37.98)	7.90(4.22)
융통성	0~	11~146	51.86(25.64)	5.76(2.85)
독창성	0~	1~115	31.59(23.26)	3.51(2.58)
총점	0~	40~444	153.55(80.84)	17.06(8.98)

<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창의적 사고의 차이

(N=125)

창의적 사고	성별			연령		
	남아(n=53)	여아(n=72)	F	4세(n=52)	5세(n=73)	F
	M(SD)	M(SD)		M(SD)	M(SD)	
유창성	67.98(36.45)	73.40(39.16)	.62	75.50(39.97)	67.97(36.45)	1.20
융통성	49.81(24.71)	53.36(26.38)	.58	53.52(25.44)	50.67(25.90)	.37
독창성	29.77(21.33)	32.93(24.71)	.56	33.25(23.82)	30.41(22.95)	.45
총점	148.98(77.81)	156.92(83.39)	.29	161.31(77.76)	148.03(83.06)	.82

별 점수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4세 유아들이 5세 유아들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창의적 사고 총점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총점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창의적 사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연구문제 2번에 대해서는 4-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아와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총점은 5점 평정에서 문항별로 평균 3.5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유아에 대한 자율성 존중, 적절한 지도, 정서적 지지의 각 문항별 평균은 3.9점, 3.1점, 3.5점으로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보통 정도(3점)'에서 '약간 그렇다(4점)'의 사이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총점($r=.21$) 및 일부 하위요인($r=.20\sim.22$)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지도는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상관($r=.21\sim.27$)을 보였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의 수행에서 관찰된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온정적일수록, 어머니가 유아의 수준에 적절한 지도방법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의 창의적 사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창의적 사고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며, 유아의 창의적 사고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총점은 평균이 153.6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유아에 따른 개인차가 큰 편(점수범위 40-444점, $SD=80.8$)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들의 창의적 사고는 유창성($M=7.9$, $SD=4.2$)이 가장 높았고 융통성($M=5.8$, $SD=2.9$), 독창성($M=3.5$, $SD=2.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창성이 융통성이나 독창성보다 유아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 유아들은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의 수가 반응하는 범주의 수나 독특한 반응의 수보다 많은 편이었으며,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 반응의 경향성은 유아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창의성 발달에 대한 견해와

<표 3>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125)

지지적 양육행동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M(SD)	문항별 M(SD)
정서적 지지	6~30	15~28	21.10(2.10)	3.52(.35)
자율성 존중	6~30	15~28	21.58(2.48)	3.60(.41)
적절한 지도	6~30	14~27	20.46(2.23)	3.41(.37)
총점	18~90	46~83	63.14(5.92)	3.51(.33)

<표 4>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간의 적률상관계수

지지적 양육행동	자율성 존중	적절한 지도	정서적 지지	총점
유창성	.10	.18*	.27**	.20*
융통성	.11	.21*	.27**	.22*
독창성	.04	.14	.21*	.14
총점	.12	.21*	.29**	.21*

* $p<.05$, ** $p<.01$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아기에는 유아들이 그린 그림과 지어낸 이야기들, 매일의 상상놀이에서 창의성을 찾아볼 수 있고, 유아기에 직접적인 경험과 상상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많이 표현하고, 호기심을 발달시키게 되어 창의적인 상상력이 절정을 이룬다고 한다(Torrance, 1976). 창의성은 인생 초기인 유아기부터 출현하며, 유아의 창의적인 사고는 일상적인 놀이와 작업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는 유아가 발달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고등수준의 사고기술을 요구하는 경험으로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표현수단과 상징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Edwards & Springate,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의 창의적 사고 검사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면서도 비교적 많이 나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아의 창의적 사고 총점과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송민영, 1998)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창의성에 성차를 보고한 연구(Kershner & Ledger, 1985)와는 다소 불일치한 것이다. Gupta(1981)는 창의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은 독창성 점수를 산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조성연(1990)은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 중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독창성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Torrance(1976)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성인들로부터 덜 제한을 받으며 성장하고,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진다는 등의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들, 딸 구별 없이 한 자녀만을 출산하는 가정이 증가하였고, 양성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서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개방적인 사고와 자기 주장적이고 융통적이며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의 창의적 사고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창의적 사고 총점과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Gupta(1981)나 조성연(1990)의 연구에서 남아의 창의성이 여아보다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적 사고 검사가 언어적 반응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발달이 빠른 여아들이 더 유창하고 융통적이며 독특한 반응을 많이 산출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총점과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 4세 유아들이 5세 유아들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4세와 5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5세보다 4세 집단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Torrance(1976)의 창의성은 4세부터 4세반 사이에 절정을 이루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체인 5세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orrance(1976)는 유아의 창의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정규교육에 입학하면서부터 감소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는 사회적응과 사회적 권위에 대한 순응이 요구되어 이에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이경화(2006)와 전경원(2000)의 연구에서 4세보다 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달적 경향이 있음을 주장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대상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의 평균 월령이 60.9개월이었고 표준편차가 7개월로 4세와 5세 집단 간에 연령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다수의 유아가 4세말에서 5세초반 사이의 월령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4세와 5세 연령 집단 간에 창의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의 창의적 사고는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r=.21, p<.05$)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할 때 유아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이고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유아에게 적절한 지도방식을 사용하는 등 양육행동이 지지적일수록, 그들의 유아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 창의적 사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해주고, 유아의 자유로운 사고와 독립성을 허용하며,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부모는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주장(Feldman, 1999; Garren, 1997)과 일치한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녀의 학습양식에 따라 부모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행동과 중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중요하며(Snowden, 1994),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을 사용하고 자녀의 반응을 구체화시키며, 부모가 창의적인 교사이자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Kemple & Nissenberg, 2000)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녀의 호기심을 장려하고 흥미를 길러주며, 반응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의 창의적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haefer와 Edgerton(198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조사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내용들은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지도와 같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것

이었으며, 이에 따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형성하는 가까운 관계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발달과 관련된다는 견해(Vondra & Belsky,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와 유아간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질 높은 상호작용은 유아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며,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주변상황에 대해 탐색하고 사고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Santrock(1997)의 주장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Santrock(1997)에 의하면, 권위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반면에 덜 권위적인 양육방식은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즉, 어머니들이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아의 반응을 부정하거나 어머니가 해답을 제시하고 유아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는 등 권위적인 양육행동은 유아를 좌절시킬 수 있고,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내거나 확장시키지 못하며,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 행동의 질을 저해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도력과 규율을 나타내거나, 유아의 의도를 인정해주며 유아를 격려하는 등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발현을 촉진시켜주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 중 자율성 존중 요인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특정한 과제수행 상황에 국한된 것이어서 유아의 자율적인 탐색과 놀이를 허용하는 어머니의 다른 상황에서의 양육행동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대상 유아의 연령이 45세로서 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지지하기보다는 부모의 지도와 안내를 더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율성 존중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차원과 관련된 변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난 것은 유아기의 특성 상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대부분 중상류층으로 사회적 가치 및 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고, 자녀의 인지발달과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자녀를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육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활발히 탐색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황혜신(2002)은 우리나라 0-7세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제외하고 평균 1.6개의 조기교육을 받으며, 조기교육의 담당자로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9.2%)보다는 전문가(31.4%)나 부모(45.4%)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유아의 어머니들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환경보다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45세의 유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가치관과 적극적인 양육에 직접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45세 유아의 창의적 사고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개인차가 크다. 둘째,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유아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사용할수록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의 창의적 사고 수준이 높다. 따라서 가정에서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을 사고 능력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으므로 유아의 창의적 사고에 국한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합류적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창의성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의 창의성 검사들이 유아에게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거나 창의성의 여러 차원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유아들에게 적용가능한 창의성 검사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창의성 검사를 사용하여 유아의 창의성의 인지적·정의적 차원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 중에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양육환경으로서 아버지의 역할과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양육행동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의 기저가 되는 양육신념이나 양육태도 등도 함께 조사하여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관련된 다양한 미시적 환경

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특정 상황에서 관찰하여 지지적 양육행동의 측면에 국한하여 분석함으로써, 창의적인 부모의 특징 중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과 같은 다각적인 항목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류층 가정의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영재 유아나 다양한 배경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들 간의 창의적 사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적 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질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보다는 실제 가정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유아간의 행동패턴을 조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창의성을 연구하고 이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발달은 어린 시기부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유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 방식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창의적 사고, 지지적 양육행동, 유아

참 고 문 헌

- 강상철(1969). 창의성 발달과 환경요인. *교육학연구*, 7(1), 33-42.
- 교육인적자원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수영, 김경미(2006). 환상동화를 통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7(1), 81-94.
- 김은기(2000). 과학 활동을 통한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안(1998). 통합적 접근법에 기초한 아동의 창의성 측정 도구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민영(1998).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2006). 한국 4, 5세 유아의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 영역 창의성의 발달적 특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26(5), 191-207.
- 이순복(2005). 아버지의 특성이 영재 유아와 일반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2), 135-151.
- 이연승, 임애경(2001).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과 창의적 역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2(3), 183-193.
- 이영, 김수연, 신혜원(2002). '유아용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85-98.
- 전경원(2000). *창의학*. 서울: 학문사.
- 조성연(1990). 아동의 창의성 발달 및 이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수(2000). 유아의 창의성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20(2), 139-166.
- 하주현(1999).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창의적 인지와 창의적 인성의 발달경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mabile, T.M. (1996). *Creative in the Context*. Colorado: Westview Press, Inc.
- Cropley, A.J. (1999). Definitions of creativity. In M.A. Runco, & R.P. Steven. *Encyclopedia of Creativity*(vol. 1). SD: Academic Press. pp. 511-524.
-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 325-33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13-326).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cey, J.S. (1989). Discrimination characteristics of the families of highly creative adolescent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3, 263-271.
- Feldman, D.H. (1999).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R.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arren, B.A. (1997).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and creativity in relation to children's*

- creative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Guilford, J.P. (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 444-454.
- Gupta, A.K. (1981). Sex differences in creativity: Some fresh evidenc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5(4), 269.
- Hellen, K.A. (1999). Maternal attitudes and their influence on the creativity level of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est Virginia University.
- Huntsinger, C.S., Krieg, D.B., & Kim, H.C. (2001). *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drawing skills overtime*. Poster Exhibit at SRCD Biennial Meeting, Minneapolis, MN.
- Isenberg, J.P., & Jalongo, M.R. (1997). *Creative Expression and Play in Early Childhood*(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emple, K.M., & Nissenberg, S.A. (2000). Nurturing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amilies are part of i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1), 67-71.
- Kerr, B. & Chopp, C. (1999). Families and creativity. In M.A. Runco, & R.P. Steven, *Encyclopedia of Creativity*(vol. 1)(pp.709-715). SD: Academic Press.
- Kershner, J.R. & Ledger, G. (1985). Effect of sex, intelligence, and style of thinking on creativity: A comparison of gifted and average IQ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1033-1040.
- Lubart, T.I. (1994). Creativity. In R.J. Sternberg(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New York: Academic Press.
- Lubart, T.I., & Sternberg, R.J. (1996). An investment approach to creativity: Theory and data. In S.M. Smith, T.B. Ward, & R.A. Finke(Eds.), *Creative Cognition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 Miller, S.A. (1996). Look what I did. *Early Childhood today*, 10(4), 15-17.
- Runco, M.A. (1999). Developmental trends in creative abilities and potentials. In M.A. Runco, & S.R. Pritzker(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vol. 1)(pp. 537-540). CA: Academic Press.
- Santrock, J. (1997). *Life-span Development*. Madison, WI: Brown and Benchmark.
- Schaefer, E.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pp. 287-318).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nowden, P.L. (1994). *The role of parents of precocious childre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y*(Gifted and talented, parental invol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ternberg, R.J., & Lubart, T.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 Tardif, T.Z., & Sternberg, R.J. (1988). What do we know about creativity? In R.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Chapter 1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gano, D., Moran, J., & Sawyers, J. (1991).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 Torrance, E.P. (1976). *Guiding Creative Talent*. New York: Robert E. Krieger.
- Urban, K.K. (1996). 창의성-요소적 접근 모델. *인간발달연구*, 24, 5-27.
- Vondra, J. & Belsky, J. (1996). 양육행동의 발달적 기원: 인성과 관계요인들.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편역), *부모-자녀 관계: 생태학적 접근*(pp. 26-65). 서울: 학지사.

(2008. 1. 15 접수; 2008. 3. 14 채택)